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우리끼리

순서

I. 연수개요	1
II. 방문국가 개요	2
III. 주요연수 내용 및 시사점	3
IV. 우수사례	9
V. 연수후기	11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선진 도시계획 및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각 업무별 필요업무 능력배양
-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발굴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 도모
- 성공적인 도시재생이라고 평가받는 사례연구를 통해 아산시 구도심 개발 및 신도시 계획에 선진사례 적용
-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 및 환경보전 정책을 통해 우리시 자연환경 및 트레킹 코스 발굴 접목 방안을 모색

□ 연수일정

- 기 간 : 2019. 6. 3.(월) ~ 6. 10.(월) 7박 8일
- 인 원 : 4명
- 연수국가 : 크로아티아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 수행	비 고
감사위원회	행정6급	권태식	- 지리 및 관광분야 자료 수집 - 사진 촬영	
안전총괄과	해수6급	이동래	- 연수계획 및 세부일정 수립 - 차량 운전	
의회사무국	행정7급	이희천	- 연수계획 총괄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온 양 3 동	행정7급	류미옥	- 회계 업무 - 현지 교통정보 및 자료수집	

2

방문국가 개요

크로아티아

□ 국가명(도시명) : 크로아티아

○ 수도 : 자그레브

○ 인구 : 450만명

○ 면적 : 56,594km²

○ 주요도시 : 스플리트, 오시예크, 리예카, 두브로브니크

○ 주요민족 : 크로아티아(89.6%), 세르비아인(4.5%)

○ 주요언어 : 크로아티아어(라틴문자)

○ 종교 : 가톨릭(88%), 세르비아정교(4%), 이슬람교(1%)

○ 주요특징

- 중남부 유럽,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위치(발칸반도 북서부)

- 지중해성 기후, 대륙성 기후

- 국가형태는 공화국이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 1991. 06. 25.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 주요산업은 금속, 직물, 농업, 목재, 식품, 전기, 관광, 원유, 조선 등임

- 화폐단위는 쿠나, 의무교육기간은 8년이다.

□ 대한민국-크로아티아 관계

○ 1995. 무역협정

- 2001. 대외협력기금 차관협정
- 2012. 한국·크로아티아 문화협정
- 총 교민 수 약 40명(일시 체류자 포함)

3 주요연수 내용 및 시사점

□ 자그레브(Zagreb)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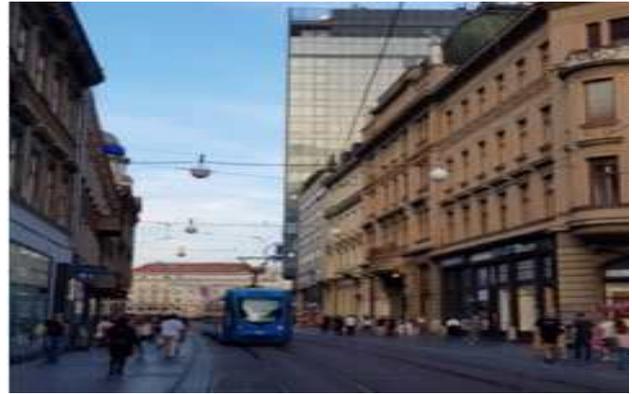
-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자그레브는 해발 약 122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나우강의 지류인 사바강 유역에 세워졌다. 수도권은 ‘자그레브 시’를 포함하여 별도의 자그레브 자치주를 포함하고 있고, 2011년 기준 수도권의 총 인구는 약 110만명 정도이다. 이 지역은 크로아티아에서 유일하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권이다.
-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이자 육상과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다. 엘라치치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자그레브의 심장 엘라치치 광장과 동상, 쌍둥이 종탑의 모습이 인상적인 성모 승천 대성당,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알록달록한 타일을 장식한 성 마르크 성당 등이 주요 건축물이다.

○ 시사점

- 트램과 전동버스 등에 교통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에너지 절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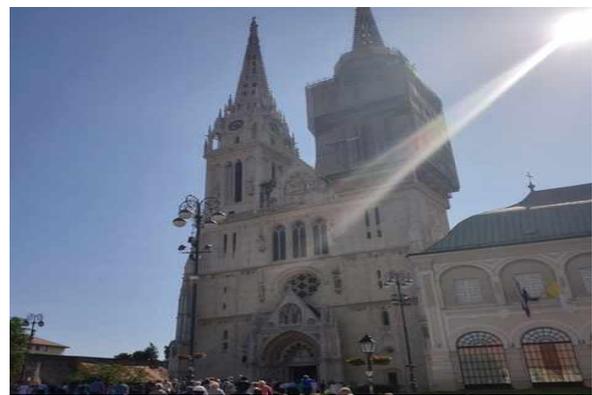
엘라치치 광장



도심 이동수단 트램



성 마르크 성당



성모 승천 대성당

□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Plitvice Lakes National Park)

○ 일반현황

-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6개의 호수와 90개가 넘는 폭포로 이루어 지며 서울시 면적의 반정도의 규모에 10km의 탐방로를 조성되어있고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나무들과 꽃 그리고 다양한 식생물이 자라도록 보호와 관리에 철저하며 에메랄드 빛 투명한 호수가 주변의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루어짐
-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

○ 시사점

- 인공탐방로를 지양하고, 약간은 위험해 보이지만 나무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하여 개설하며 자연보호에 최대노력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룸



플리트비체 폭포 전경



나무 표지판



목재를 사용한 산책로



친환경 전기 보트

□ 자다르(Zadar)

○ 일반현황

-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북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로마제국 시대부터 문헌에 나오는 오래된 도시로 중세에는 슬라브의 상업,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 2005년 유럽 공공장소 설치 예술상을 수상한 바다오르간과 바로 옆에 위치한 태양열 전지판 태양의 인사를 비롯해, 구시가지에 위치한 성 도나트 성당, 그 앞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운 로마식 광장 포룸과 장미모양의 창문이 특이한 아나스타냐 대성당이 주요 건축물 등이 있다.

○ 시사점

- 기존 공간에 새로운 설치물로 자연과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자다르시의 태양의인사, 바다오르간



바다오르간



태양의 인사

□ 스플리트(Split)

○ 일반현황

- 크로아티아 제2도시로 달마티안 지방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구시가지 전체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로마시대의 디오클레시안 궁전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도미니우스

성당, 크로아티아 종교지도자 그레고리우스 닌 동상, 구시가 남쪽 마르얀 해변에 동서로 뻗어있는 리바 거리 등이 주요 명소

○ 시사점

- 단순히 깔끔하게 정비된 유적을 넘어 시민, 관광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려운 주차를 주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가 주차공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 농산물 시장과 수산물 시장 등의 장터가 곳곳에 열리면서 도시의 기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및 체험 기회 제공



그레고리우스 닌 동상



디오클레시안 궁전



리바 거리

□ 두브로브니크(Dubrovnik)

○ 일반현황

-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다. 크로아티아 최남단에 위치한 두브로브니크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중세 건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1991년 크

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르비아군의 공격으로 구시가지의 7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1994년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성채, 왕궁, 수도원, 교회 등 역사적 기념물들이 복원되어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2km에 달하는 성벽 안으로 두브로브니크 성문을 잇는 대리석 바닥의 플라차거리, 바로크 양식의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두브로브니크 대성당,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모두 드러나는 스포자 궁전 등은 두브로브니크의 대표적 명소다. 성벽 왼쪽으로는 옛 항구 올드포트가 있다.

○ 시사점

- 도시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두브로브니크는 현재 3만3천개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하고, 연간 120만의 관광객이 이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갔다고 추정. 거주인구 14000명의 도시에서 연간 120만의 관광객을 서비스 구시가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두브로브니크 시를 유적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보존공간으로 조성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아산시 문화재 보존관리의 방향성 제시



성벽과 올드포트 항구



두브로브니크 대성당



성벽



스폰자 궁전

4

우수사례

□ 성공적인 도시계획

- 옛것을 보존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자연그대로의 녹지 공간속 도시발전을 모색하며 우리시의 전통적인 공간 및 문화가 반영한 도시계획 필요

→ 무분별한 산림의 허가, 건축허가 등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과 특성을 살린 도시조성

□ 친환경적인 문화재 보전과 활용

-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및 문화재 들을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화 하였음

→ 주요 관광지를 통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 및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 상품, 지역특색을 담은 기념품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 관광 활성화 정책에 활용, 영인산휴양림 등 트레킹 코스 발굴 및 산책로 개발

□ 성공적인 도시재생

- 오래된곳을 현대인의 생활공간에서 조화를 있게 한다거나, 기존 공간에 새로운 설치물로 자연과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자다르시의 태양의인사, 바다오르간, 피터조디악광장과 스플릿시의 디오클레아누스 궁전 및 리바거리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공개와 참여를 통한 대표적 성공사례

→ 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를 통하여 우리시 구도심이 가진 매력을 활용하여 관광지로 활성화한 사례를 분석하여 원도심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도시재생에 활용방안 모색

□ 깨끗한 느낌의 주변환경

- 골목골목이 요새화 되어 있었지만 담배꽂초나 쓰레기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상가 등의 간판 또한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

→ 우리시의 도로관리, 현수막 등 광고물의 관리(간판의 디자인, 설치 제한) 등의 일제정비 및 향후 관리방안 전환

5

연수후기

□ 아름다운 크로아티아 - 감사위원회 권태식 -

크로아티아의 인상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중세 건축양식, 유적지, 구시가지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후세에 현재의 자연 그대로를 물려주기 위한 보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었으며, 법규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는데 유적지(관광지)의 관리(유적지 인근에는 식당 등 상가의 신규허가를 억제), 정원의 관리, 교통질서의 확립 등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에서, 선진행정과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 친환경의 나라 크로아티아 - 안전총괄과 이동래 -

전쟁의 상처를 딛고,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환경을 잘 보전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의 삶을 찾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현재도 미래도 밝아 보인다. 삶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며, 시민의식이 성숙해 보였다. 1,500년된 문화재인 성벽에도 자연스럽게 걸터 앉고 성벽을 타기도 하지만 누구하나 재제하는 사람들은 없고,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지켜 나가는 듯 했다. 골목 어느곳을 가도 담배꽂초나, 무단투기 쓰레기가 없다는 것에 놀랐고, 한 낮의 시가지 풍경(여유롭게 차와 맥주 등을 마시며 담소를 나눔)에서, 아프고 기억하기 싫은 상처인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전하며,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이 되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관광의 목적지로 승화시키는 발칸 나라들의 정책과 문화 그리고 관광육성산업 등을 체험하고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빨간지붕 크로아티아 - 의회사무국 이희천 -

14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통해 도착한 크로아티아의 첫 인상은 깨끗함과 빨간 지붕의 도시였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체험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 하였으며 광활한 자연환경에 놀라고, 그 속에 자리한 도시와, 도로망, 깨끗한 환경속 거리 등, 보는 것만으로도 떠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또한 시민 스스로 자연을 보전하고, 생활 및 자치 법규를 지키는 것을 보며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선진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크로아티아(온양3동 류미옥)

크로아티아는 현대와 과거가 잘 어울려져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크로아티아 전체산업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의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중해의 시대의 중요한 도시로 인식되던 과거 지중해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관광산업의 목표아래 다양한 정책 및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도 지중해의 휴양지기능의 관광지(계절적 요인으로 여름에만 집중된 관광지)라는 이미지에 더해서 1년 내내 방문해도 좋을 만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성공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곳을 현대인의 생활공간에서 조화를 있게 한다거나, 기존 공간에 새로운 설치물로 자연과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새로 태어나고 이를 통해 세계인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